

군청이 사찰토지 ‘무단 훼손’

사전 협의 및 사용 승낙 누락... 고창군 “실수 인정한다”며 사과

전북 고창군이 하천 정비를 추진하면서 토지주인 문수사(주지 선법)에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은 2월경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최근 칠성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수사에 사전 연락이 나 토지 사용 승낙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

칠성소하천 정비 사실을 전혀 몰랐던 문수사는 2월 초 사찰 소유지에 측량표시를 위해 설치된 붉은 깃발을 발견했다. 그때야 문수사는 하천 정비 사실을 알게 됐고, 고창군에 항의를 하는 등 시정을 촉구했다.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은 “공사 입찰 공고와 사업자 선정이 끝난 한참 뒤에 관련 공무원이 사찰로 찾아와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사 시행사 관계자가 토지수용 동의서를 받으러 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선법 스님은 2010년 연말 단풍나무 숲을 지키기 위한 ‘팍스테이 빌리지 조성사

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본지 제815호 보도). 스님은 지역 현안 사업에 문수사가 반대만 일삼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문수사 스님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오해와 악성 루머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선법 스님은 이러한 루머로 인한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선법 스님은 “고창군에 문수사와 신도, 마을주민, 행정기관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현명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자고 제안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민과 문수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자체의 개발 논리에 무작정 사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인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



고창군이 하천 정비사업을 하며 파헤친 문수사 소유지

담당은 “사전에 문수사에 충분한 사업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수사 스님께 사죄드렸다. 현재 문수사 동의 없는 상태로 토지 강제 수용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억5000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칠성소하천 정비사업’은 1.1km에 이르는 칠성소하천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토지 1만 1879㎡ 중 문수사 토지 약 2479㎡가 포함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원 봉사와 포교 둘이 아니죠”

봉사와 포교에 일심전력하는 정별모, 모순영 부부



부인인 모순영 불자도 남편의 영향으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리 지역 대표적 자원봉사 단체인 대원회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원회 회원들과 함께 매월 1인당 5000원씩 회비를 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총 32 가족에게 매월 김치와 돼지불고기, 오징어 젓갈무침, 멸치조림

등 반찬 3가지를 정성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군산교도소, 군부대 병당, 양원 등 방문에 필요한 물품 및 간식 등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소외된 노인들의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는 봉사와 함께 2003년 5월부터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정식 등록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해주고, 장애인들을 돕는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원회 회장에 취임해서 봉사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종 불교행사에도 항상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이들 부부는 봉사란 시간이 남아 돌고, 살림이 넉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여주고 있다.

정별모, 모순영 부부는 “포교활동이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타종교의 눈부신 성장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신심을 배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스님과 재가불자 모두 화합된 모습으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 불교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빵도 굽고, 일자리도 만들고

해남장애인복지관, ‘워킹맘 베이커리’ 신설



이번 사업장에는 제과제빵 기술자 1명과 장애여성 4명, 장애아동부도 2명,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해 제빵 교육과 판매를 병행한다.

특히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제빵기술 외에도 매장 관리기술의 노하우도 전수받는다.

사업장을 준비한 관장 지용 스님은 “워킹맘 베이

빵굽기를 해남여성장애인들을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해남지역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사업장인 워킹맘 베이커리가 6월 16일 해남읍에 문을 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용)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여성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립형지역사회공동체사업 ‘워킹맘 베이커리’를 개설하고 교육에 나선다.

이번 사업장에는 제과제빵 기술자 1명과 장애여성 4명, 장애아동부도 2명,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해 제빵 교육과 판매를 병행한다.

한편 워킹맘 베이커리는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라남도와 해남군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해남지역 여성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남군 지역사회공동체사업장 제1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웃의 고통 함께 나눠요”

전북 포교사단 무료급식 봉사활동 펼쳐

전주 전북포교사단(단장 김진수)은 6월 9일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 처음 임용된 신규포교사들의 교육을 겸해 열린 이날의 봉사활동에는 10여명의 신규 포교사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을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또 전북포교사단에서 준비한 양말도 어르신들께 일일이 전했다.

이날 무료급식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한 김진수 단장은 “포교사들이 포교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포교의 한 방편이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포교사단이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25 희생자 추모, 불교계 나서

추도 사업회 발족... 대구 승불사·광덕사 등 참여

불교계가 중심이 돼 한국전쟁을 전후해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 사업이 추진된다.

청도 승불사 주지 청호 스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청도지역 6·25 민간인 희생자 추도 사업회’는 6월 7일 청도군 각북면사무소 강당에서 대구 광덕사 주지 운성 스님(운영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추도 사업회 28명의 위원은 앞으로 청도지역의 정확한 민간인 희생자 규모 조사와 희생자 위령제, 추모비 건립에 나서

는 한편 국방부와 함께 유해발굴 사업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청도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좌익혐의 등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6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고 유족들은 연좌제 등으로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야 했다.

청호 스님은 “늦은 감은 있지만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 청도에서 이념과 종교를 초월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을 전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054) 371-6389

손은철 대구지사장

노우 스님과 불교를 묻고 답하다 108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알아보는 불교의 최상승 교리들!

백팔문답요집 불교란 무엇인가

百八問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의문과 물음,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엄밀히 선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방대하고 복잡한 불교 철학과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불교의 깊고 넓은 사유 세계를 보여주는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노우스님 저 | 신국판 변형 | 343쪽 | 15,000원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